

# 꿀벌로 지뢰 찾는다 ...독약냄새에 먹이연상

크로아티아의 한 대학에서 꿀벌을 이용해 불발 지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니콜라 케지크 자그레브대학 교수는 꿀벌의 후각이 민감하다는 것에 착안해 꿀벌이 매설된 지뢰를 찾아내도록 훈련시켰다. 먹이통을 설치하고 그 주변 토양에 폭약을 묻어 꿀벌이 폭약 냄새를 맡으면 먹이를 연상, 몰려들도록 한 것이다. 꿀벌을 훈련시키는 시간은 사나흘이면 충분했다.

케지크 교수는 “지뢰 제거단이 발굴 작업을 마친 곳에도 아직 지뢰가 많이 남아있다”며 “미발견 지뢰를 찾아내는 데 꿀벌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전에 활용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까지 훈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1990년대 유고 내전 당시 매설된 지뢰가 약 25만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8년 이래 100명 이상이 지뢰 사고로 숨졌다.

앞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미 국방부 산하 첨단 국방연구프로젝트국(DARPA)은 지뢰 탐지 꿀벌을 훈련하기 위해 300만달러(약 30억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곤충의 본능적인 행동과 기온 변화에 대한 반응 등의 문제로 지난해 실패를 선언했다.

- 2007. 5. 31 / 경향신문 -

## 미담(美談)사례 - 아름다운 동료애로 재기부활

충북 충주시에서 우리 양봉농가들에게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미담사례의 주인공은 충북 충주시의 김대식 회원이다.

김대식회원은 충주지역에서 양봉을 해왔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그에게 갑작스런 중풍이 찾아왔다. 중풍으로 인해 본인의 몸을 돌보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면서, 자연스레 그가 키우던 벌들은 사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나씩 하나씩 폐사하더니, 결국 그가 오랫동안 가꾸은 소중한 일터는 모두 망가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몸도 망가지고 생업도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보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바로 충주지역 주변 양봉인들이 김회원의 어려운 소식을 접해 듣고, 자신이 키우던 벌통을 몇통씩 김회원에게 기꺼이 나누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벌통이 50~60통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김회원도 몸을 추슬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러한 선행에 감동된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양봉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올해는 아카시아꿀을 5~6드림이나 채밀하는 결실을 맛보았다. 물론 그의 아카시아꿀 채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다시는 양봉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그에게 이번 채밀은 처음 채밀했을 때의 기쁨에 버금가는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요즘은 누구나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 양봉인들 사이에서 만큼은 이러한 아름다운 사례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